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이구동성...재원 마련이 관건

‘5·9 선택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아동수당은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을 공약적이다.

2일 광주일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복지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을 펴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불분명하다.

◇육아 복지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공약이 ‘아동수당 지급’과 ‘육아휴직 확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만 0~5세에 대해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11세 아동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준을 두고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홍 후보는 초·중·고생 중 소득 하위 50% 이하에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활성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급의 40% 수준에서 3개월간 80%(최대 200만원 한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1년 육아휴직자는 초기 3개월간 임금을 100% 지급하면서 상한액도 2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를 배로 인상하기로,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60%까지 올리

■대선 후보 복지 주요 공약 비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보육육아	아동수당 도입 (0~5세, 월 10만원)	소득 하위 5% 이하 초·중·고생 대상	아동수당 도입 (소득하위 80% 이하, 만 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초~고등,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0~11세, 월 10만원)
저출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후 3개월까지 휴직급여 2배 인상)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3개월 임금 100% 보장, 9개월 60% 상향)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육아휴직수당 통상임금 60%로 상향)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80만~150만원, 통상임금의 60%로 인상)
기초연금	2021년 소득 하위 70% 월 30만원	2022년 소득 하위 70% 월 30만원	소득 하위 50% 월 30만원	소득 하위 50% 차등 인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

〈자료:경제정의실천연합〉

육아휴직·보육시설 확대...저출산 대책 핵심

“고령화 사회 치매, 국가 차원 치료” 공감대

수십조 예산...‘증세 없는 복지’ 포퓰리즘 우려

는 것을,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 인상하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현재 24.2%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확대에 대해서는 문 후보·안 후보·심 후보는 40%까지, 유 후보는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노인 복지

후보자들 모두 기초연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인상 폭과 방식은 달랐다.

문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30만원으로, 홍 후보는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유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노인

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공언했고, 심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노인의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문 후보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경증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치매 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기관 이용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

후보들은 이러한 공약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 계획 등에 대

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등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문 후보는 18조7000억원, 안 후보는 12조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 후보는 5년간 50조3290억원의 재원이, 심 후보는 출산·육아 공약에 11조원을 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홍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액수, 실행계획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후보별 복지공약을 평가한 결과, 문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 소요가 많은 공약을 제시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우선 순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제시한 점은 재원 마련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보장은 개혁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혹평했고, 심 후보는 사회복지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머니 웃으세요” 광주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2일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동구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장한어버이·효행자 등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광주 동구청 제공〉

“달팽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복지재단, 장애인 10명 활동 지원

#1.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민수(24)씨는 평소 장애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 장애인 문화관광센터에서 활동중이다. 그는 동시에 달팽이자기로 활동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여행지를 답사하고 여행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여러 장애인에게 소개하며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과 이동권 등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 시각장애인 이재화(61)씨는 겨우 빛을 구분할 정도의 시력만 있다. 그는 현재 시각장애인 사진동호회에서 활동중이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사진활동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사진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달팽이자기 사업을 통해 광양, 진도, 여수 등에 다니며 사진을 찍어 오는 10월 시각장애인 힐링이 날 행사 때 전시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그는 또 광주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1호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사에 임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 장애인 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팽이자기’

사업이 화제다. ‘달팽이자기’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모습을 ‘달팽이’에 상징화하고, 지기(知己之友)의 ‘지’를 붙여 모든 장애인들의 친구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복지재단은 참여 장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시작된 ‘달팽이자기’ 사업은 김민수씨와 이재화씨 외에도 각각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10명의 장애인이 참여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현 대표이사는 “지난해 재단에서 실시한 ‘자립생활 환경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이어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더 넓은 사회로의 진출과 사회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달팽이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팽이자기’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실태조사에 이어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더 넓은 사회로의 진출과 사회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달팽이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아빠, 회사 쉬고 둘째 돌보면 3개월간 月 200만원 준대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상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는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이는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으로 둘째

아이 출산율을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을 지원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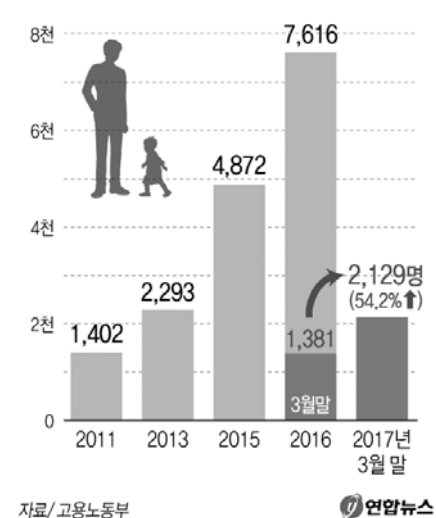
남성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2017년 3월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0.2%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016년 3월말 6.5%)



자료/고용노동부

연말뉴스

전남복지재단 ‘전남복지정보 통’ 첫 발간

전남복지재단이 지역 복지 정보와 이슈 등을 담아 도민들에게 알리는 계간지 ‘전남복지정보 통(통)’ 첫 호를 발간했다.

‘전남복지정보 통(통)’은 지역 복지를 책임지는 전남도도와 22개 시군의 복지 정책 방향, 지역 복지기관 소개, 최근 복

지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았다. ‘전남복지정보 통(통)’은 20쪽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전라남도 및 전남도의회, 22개 시군,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민·관 복지기관, 언론사 등 600여 곳에 1500여 부가 배포됐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미스카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에서 선택된 컬러그래피 디자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페넨디자인이러 잔 엔지니어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9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외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IPALC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